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3년 2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논문

#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음악 프로그램 연구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문 혜 진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음악 프로그램 연구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 Music Program of University-led  
After-School Social Business:  
Focusing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2013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문 혜 진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음악 프로그램 연구

지도교수 김 지 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문 혜 진

문혜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혜   경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지   현   (인)

2012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 ABSTRACT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3. 선행연구의 고찰 .....	3
II. 이론적 배경 .....	9
1. 용어의 정의 .....	9
2. 방과후학교의 특기적성 교육 .....	18
3. 광주광역시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 .....	24
III.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음악 프로그램 연구 ..	29
1.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프로그램 분석 .....	29
2.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음악 프로그램 장점 ..	43
IV. 결론 및 제언 .....	47
참고문헌 .....	49

## 표 목 차

<표 1>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참여 주체들의 역할 .....	17
<표 2> 2011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2011년 6월 기준) .....	20
<표 3> 방과후학교 내용별 프로그램 현황 .....	20
<표 4> 광주광역시 강좌별 프로그램 현황 .....	23
<표 5>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선정 결과 .....	31
<표 6>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선정 대학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 ..	32
<표 7> B대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38
<표 8> A대학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음악 프로그램 .....	39
<표 9> B대학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음악 프로그램 .....	41

# 그림 목 차

[그림 1] 광주광역시 행정구역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비교 ..... 24



# ABSTRACT

## A Study on a Music Program of University-led After-School Social Business: Focusing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Moon Hye-jin

Advisor : Prof. KIM Ji-hyun Ph.D.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present after-school programs in Gwangju, compare after-school music program which is university-oriented and social business-based with existing music programs and present suggestions and directions for them.

Regarding the methods of study, data on music programs of speciality-oriented after-school in Gwangju were collect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In particular, the study gave a focus on after-school music program supported by universities and social business organizations, university-oriented after-school executed in 2012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suggestions for university-oriented after-school social busines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as it was designed to solve the problems of existing after-school programs, it has sufficient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local governments and education offices.

Second, various after-school programs such as intensive programs, sports and art programs, and care programs have been presented in the way where students can exercise advanced ability learned from their college study. Also, in preparation for five days a week system, various creative activities were planned and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2009 Revised Curriculum, an emphasis was given on creative hand-on programs, which is usually managed by university-oriented after-school social business and gives positive effects on music education.

Third, it is expected that diverse after-school programs can give more job opportunities to the unemployed who graduated from teachers' college and education colleges.

Fourth, high quality after-school programs were provided for rural areas where there are many small-sized schools and even isolated classes. Rural areas including fishing and mountain villages have difficulties in obtaining good instructors who can manage various programs. Various programs which are provided to students living in rural areas by graduates from colleges located there were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ffective directions to activate after-school music program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for active management of the music programs, consistent support should be given to musical education environment. Music classrooms, practice rooms, and space where to store musical instruments should be secured and schools or education offices should give support to purchase of musical

instruments in order to enhance efficacy of specialty education and satisfy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demanders' need.

Second, volunteers such as graduates from colleges of education or teachers' colleges, and art and sports students should join in management of various high quality programs, which will expand job and teaching opportunities. Also, their outstanding abilities should be used to provide high quality programs for students in rural areas, fishing and mountain villages.

Third, the necessity of music education should be emphasized through music after school programs, which can give helps to nurturing great personality of students. The number of programs should be increased to form desirable relationships between peer students, and various model programs such as chorus and Samulnori, project programs and cooperation programs should be applied.

Fourth, continuous support networks should be developed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s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can not be completed for a short time, consisten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it. Schools for after-school programs should be designated specially or various support systems for instructors, musical instruments or music environment should be developed specifically.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요즘 대한민국의 교육은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한창 밝고 즐겁게 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의 청소년들이 입시 교육에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 청소년들의 자기 삶의 만족도 또한 현저히 낮다. 현 교육의 세태가 국·영·수 위주의 수능 대비 공부에 열중하며 언제부턴가 예체능 교육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현재의 입시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교육방법으로 예체능교육, 특기적성 위주의 교육에 주목 하고자 한다. 입시 공부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특기를 중심으로 예체능 교육을 받다보면 보다 더 활기차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 다수의 학생들이 예체능 쪽에 관심을 보이고 재능을 보일 수 있는데 우리의 현재 입시 교육은 그런 학생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예체능 중심의 특기적성 교육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바로 특기적성 중심의 방과후학교라고 생각한다. 방과후학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 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 들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전인 교육의 차원에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지만, 현재의 방과후학교는 당초 의미와는 달리 일선학교에서는 보충수업 및 진도 나가기로 변질되었고, 강제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수강하게 하는 학교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방과후학교 운영은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에 맞는 방과후학교 운영목표 및 운영전략 부재로 방과후학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와는 다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학교교육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이선경, 2012: 29-30).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나타난 대안이 대학이 주도하고 교육청-지자체 등이 협력을 통해 설립한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이다.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은 교과부가 공신력 있는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방과후학교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방과후학교의 질을 제고하여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다.

특히 본 연구자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음악·미술·체육·체험 중심의 참여형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특기적성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들은 학생의 정서와 인성함양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의 음악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음악 프로그램들을 분석하여 장점과 시사점, 활성화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기적성 중심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 현황을 파악한다. 특히 2012년 실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주도 (예비)사회적 기업<sup>1)</sup>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sup>2)</sup>

현행 방과후학교의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후지원센터의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A대학과 B대학의 사회적 기업 자료는 각 대학의 방문을 통하여 자료집, 일부 교사들의 면담 등을 수집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도하에 시작된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은 2011년에 육성 계획이 발표되어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므로 자료가 충분치 않고 성과나 장단점 등이 아직 확실히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 3. 선행연구의 고찰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매우 많은 편이며 최근에도 다양한 전공과 시각에서 연구(김태웅, 2007; 노현지, 2011; 명지현, 2008; 민경훈, 2007; 심라경, 2010; 엄재화, 2008; 우수미, 2010; 이선희, 2001; 최정선, 2009)되어져 왔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과후학교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방과후학교가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의 정책 취지 및 목표에 대한 이해와 공감감이 부족하다. 여전히 방과후학교를 사교육 대안으로만 인식하여 교과 프로그램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정규 수업의 연장선이 되거나 사교육 기관을 쫓아다니게 되어 공교육으로써 학교 본연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기도 한다.

둘째,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방과후학교 운영이 현직교사 위주로 이루어져 정규 수업과 차별화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 1) 대학 주도 사회적 기업은 2012년 9월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는 법인이 대부분이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로 통칭하였음을 밝혀둠.
  - 2) 각 사회적 기업 혹은 사업단의 사업내용은 본 연구자가 구체적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알파벳 이니셜 순서로 명시하였음을 밝혀둠.

셋째, 외부강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려고 해도 우수강사를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과 외부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과다한 수강료 징수,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넷째,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관리 장치가 미비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예산은 목적사업비로 용도가 지정된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문제점들이 있다(이선경, 2012: 25-29).

첫째, 방과후학교의 실태조사에 관한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태웅(2007)은 사회가 급속한 변화에 맞추어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방과후학교가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음악 활동분야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며 예산 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엄재화(2008)는 4개의 시·도인 서울, 경기도, 대전, 충청북도교육청의 음악과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특징으로 대부분 기악에 치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가창, 창작, 감상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미흡한 점과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의 호응도가 매우 높으나 컴퓨터 창작음악 부서를 조직하여 음악 교육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수미(2010)는 음악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효과적인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각 학년에 맞는 체계적 음악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수한 음악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학 일반 연수를 받아 음악가가 아닌 음악교육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며 현직 교사와 정기적인 모임을 마련하여 교육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며 특기적성 음악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둘째, 예술지원정책 및 문화·예술적 사회적 기업의 설립 사례에 관한 연구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인선(2011)은 우리나라 예술지원정책 중 음악교육지원을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 연구함으로써 예술지원정책의 문제점 도출 및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공공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었고 이외에 각 교육청에 소속된 학교의 음악교육은 한국판 엘 시스템마인 ‘학생오케스트라사업’, ‘예술·체육중점학교사업’과 같은 다양한 예술지원정책을 통하여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흡수하는 방안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민간지원은 개인, 기업, 재단으로 나누어 ‘기업 메세나<sup>3)</sup>’를 토대로 연구하여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김은희(2012)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고 안정화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및 문화적 욕구에 초점을 맞춰 문화·예술 부문의 창의적 활동창출과 영리적 성격과 더불어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의 패러다임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전략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이라는 창의적 분야의 사업화 추진 과정에서 예술가와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문화·예술적 욕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사회적 네트워크 시스템의 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현재의 의·식·주 문제의 단순 복지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차원 높고 넓은 문화·예술적 측면의 사회구성원들의 욕구가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연결되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셋째, 기존의 방과후학교의 음악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선희(2001)는 코다이 음악 교수법을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통해 실시하고자 하는 음악 교수·학습 과정안을 구안하였고 그 효과에 대해 논하였다. 이 교수법은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교육 체제로 학생들에게 질적 수준이 높은 다양한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획일화된 음악교육

---

3) 로마제국 초기의 대신으로 예술, 문화의 옹호자였던 메세나스로부터 명칭이 유래되어 기업이 예술, 문화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4월 18일 삼성, 현대 등 재벌그룹을 비롯 총 204개 기업체가 참여한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가 발족돼 기업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에서 벗어나 개성과 소질을 신장시키는 음악 교수법인데 특히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솔페이지(solfege)를 기초로 하여 만든 코다이 음악 교수법은 음악교과의 통합적이고 창조적인 기능을 신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이며, 우리나라 음악 교육환경에 유용한 방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적 음악 교육의 학습방법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말하고 있다.

민경훈(2007)은 모든 예술 영역을 넘나들며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통합형 음악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통합형 음악 교육 방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통합형 음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모델을 구성하고, 이 모델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수업 모형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수업 모형의 예시는 각 예술 영역 7개 분야(음악, 미술, 무용, 독서, 미디어, 애니메이션, 연극)와 관련하여 한 학기 24시간형의 방과후 학교 통합형 음악 교육이 가능한 모형으로 제시, 교육 내용별 성격에 따라 체험·이해·소통 중심 교육 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사가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적용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명지현(2008)은 방과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뮤지컬수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교육의 효과 및 장단점을 분석하였으며 효과적인 특기적성 뮤지컬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뮤지컬 수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교육 시간의 부족을 꼽았으며 이로 인해 뮤지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음악 요소를 소홀히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음악 수업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고 아직은 초기단계인 뮤지컬 수업이 꾸준히 연구되어진다면 많은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정선(2009)은 보컬 실기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학생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시키고 배울 수 있도록 보컬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논하였고 중학교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방과후학교의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용음악 보컬반의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실기 지도 방법을 연구하여 작성하였다.

심라경(2010)은 연구의 목적은 방과후학교에 클래스 피아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초급수준의 초등학생들이 음악의 기본 악기인 피아노를 통해서 음악의 즐거움을 느끼고 포괄적 음악성을 개발하는데 있다고 했다. 클래스 피아노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일반적인 음악 용어의 이해, 큰 보표 에서의 독보 읽기, 음악의 특징을 듣고 신체로 표현하기 등 포괄적 음악성이 개발될 수 있었고, 본 연구결과 각 차시의 수업 목표에 맞게 인사노래를 변형하여 노래를 부름으로써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달크로즈 교수법을 클래스 피아노 교실의 제한된 환경에 적용 가능한 요소들만 추출해서 사용해서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클래스 피아노가 방과후학교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클래스 피아노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차후에는 학생용 교재도 개발되고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연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노현지(2011)는 아트 프로펠 이론을 바탕으로 방과후 기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등학교 2학년 바이올린 교실에 적용, 학생들의 연주능력과 음악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본 프로그램의 활동중심 개념학습은 학생들의 연주능력과 음악적 이해력을 높였으며 긍정적인 음악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토의시간, 음악일지를 통해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도모,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를 길러주었으며 그룹연주, 기악합주 프로그램의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들은 대인관계능력, 협동심을 기르도록 도와주었으나 수업의 내적·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날 수 있기에 그 원인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의 한 반의 바이올린 교실에 한정하여 질적 연구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다른 교육 상황에서의 일반화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기존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나 음악프로그램 연구는 많았지만 방과후학교의 음악교육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지원 부족 등의 한계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타 교과들과 연계한 교과목들의 융합프로그램이

나 참신한 프로그램들은 없었고 한 악기, 한 분야에만 집중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분석 연구는 없었으므로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12년 교과부의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탄생의 배경을 언급하고 방과후학교의 포괄적 개념을 정리 한 후, 현행 방과후학교의 실태를 조사하고 기존의 방과후학교의 음악 프로그램과 대학 주도 사회적 기업의 음악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용어의 정의

#### 1)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가리킨다(벤처기업협회, 2009). 예를 들어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문제를 기업적 방법으로 해결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 문제는 경제성장 둔화, 양극화, 인구구조와 가족구조 변화, 고령화, 실업, 교육, 환경 등이고 기업적 방법이란 수익활동을 영위하여 지속가능한 활동, 즉 영리활동과 비영리활동, 창의와 혁신 등이 그것이며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해결한다. 사회적 기업은 실업과 빈곤, 지속가능한 개발, 지역 재생, 세계화에 대한 대안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여 발전한 계획을 가리키며, 70년대 이후 유럽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해 90년대 후반부터 제도화되고 있는 영역이다.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에 의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게 된 중요한 배경의 하나로서, 이런 사회서비스를 국가

제정으로 모두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고용 없는 성장, 지식노동 위주 산업으로의 이행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와 양극화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실업률과 양극화 문제의 해결, 특히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라는 측면에서 시작되었으며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당시 유럽의 제도를 많이 벤치마킹함과 동시에 미국식 방식도 접목시켜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모색하였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전하는데 영향력이 있고 사적부문이나 공공부문에 의해 채워지지 못한 사회적 욕구에 대해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해결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경제적 재생에 힘을 제공하고 안정성과 지역사회의 반향을 증진하는 특성을 지닌다.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을 위한 힘을 제공하는 것이다(김은희, 2012: 9-10). 사회적 기업과 활동의 예로는 ‘빅이슈’의 노숙자의 자활 및 잡지 판매, ‘Fifteen’의 불우청소년 직업교육(요리) 및 레스토랑 운영, ‘Goodwill’의 소외계층의 직업훈련 및 취업, 기부 및 재판매 등이 있다.

## 2) 방과후학교

### (1) 방과후학교의 정의

방과후학교란 기존의 특기적성교육과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을 통합하여 2006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교육체제를 말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5). 다양한 학습 욕구와 보육 욕구를 해소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학교·가정·사회가 연계한 지역 교육문화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자율성·다양성·개방성이 확대된 혁신적 교육체제를 표방하며, 전국의 초·중·고등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각급 학교에 따라 단계별 목표를 정하였는데, 초등학교 1~3학년은 방과후 보육 및 교육 욕구 해소, 4~6학년은 특기적성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 밖 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 데 목표를 둔다. 중학교는 수준별 교과 보충과 심화 학습,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에, 고등학교는 수준별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진로 지도 등을 통한 능력 개발에 목표를 둔다.

## (2) 방과후학교의 변천과 현황

1995년 5월 31일 교육 개혁안에 따라 2003년까지 특기적성교육 등 방과후 교육 활동이 운영되었고,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라 수준별 보충학습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2005년 3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과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운영하던 명칭과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통합하여 48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06년부터 전면 실시하였다.

## (3) 방과후학교의 추진배경 및 경과

기존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방과후학교’를 추진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계층별·지역별 교육비 지출 격차가 상존하고 있어 교육비 격차는 단기적으로는 학업성취도의 격차로, 장기적으로는 학력 간 임금·소득 격차로 이어짐에 따라 사회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교육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정부 지출예산 중 교육비지출이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 부모가족 등 가족 형태의 변화, 근로 빈곤층의 증가 등으로 아동·청소년이 방과 후에 보호자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 뿐 아니라 보육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신 교육서비스로서의 방과후학교가 필요하게 되었다(문홍근, 2008: 12). 또한 98년도 이후 특기·적성 교육 등 방과후 교육활동을 도입했으나, 다양한 과외 욕구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방과후학교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1995년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5.31. 교육개혁안」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의 방향을 전환하고 수익자부담으로 특기·적성 등 방과후 교육활동을 실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996년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충학습을 금지하고 일선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시행하도록 하였다가 방과후 교육활동이 입시위주의 교과교육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1999년 방과후 교육활동의 명칭을 특기·적성 교육 활동으로 변경하여 추진 해 왔다. 2004년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수준별 보충학습 및 방과후 교실의 추가 도입을 제시하였으나 다양한 교육서비스 수요를 흡수하고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어 수준별 보충학습,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로 운영되던 방과후 교육활동을 2005년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방과후학교’로 통합하고 2006년부터 「방과후학교」가 본격 추진되었으며,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방과후학교는 기존의 틀대로 추진하되 전통·문화 예술 프로그램 확대를 즐거운 학교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임은경, 2010: 4-5).

#### (4) 방과후학교의 목적

방과후학교는 다양한 학습 및 보육에 대한 욕구 해소를 위해 실시된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득 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발전을 선도할 목적으로 방과후학

교는 그 존재이유를 가지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의 다면적 발달과 공동체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방과후학교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문화 환경과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공동체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학교 보충수업의 개념이 아닌 다양한 특기 적성과 문화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안정된 인격 형성을 도모할 수 있고, 사회 공동체적 관점을 키울 수 있다는 말이다(강진현, 2009: 23-24).

#### (5) 방과후학교의 내용

방과후학교의 내용적 측면의 성격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째, 특기적성 교육 제공방안에서의 방과후학교 둘째, 수준별 보충·심화학습기회 제공 즉, 교과관련 교육 제공 방안에서의 방과후학교 셋째, 핵심능력 및 태도 신장방안으로서의 방과후학교 넷째, 정규교육과정 연계학습으로서의 방과후학교이다. 방과후학교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기적성 교육 방안으로서의 방과후학교의 성격은 학생의 개개인의 특성을 발굴하고 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개인이 지닌 다양한 특기·적성을 발굴하고, 이를 최대한 개발하여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며, 수준별 보충·심화학습기회의 제공의 방과후학교는 학생수준에 적합한 교과 또는 교과 보충·심화학습기회의 제공하고, 학습이 부진한 학생에게는 기본학습 능력과 지식, 기능을 습득하게하고, 보통이상인 학생에게는 학생 수준별로 학습내용을 보다 심화할 수 있는 내용을 지도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06: 65).

핵심능력 및 태도 신장방안으로서의 방과후학교는 현재와 미래사회에서 학생이나 성인이 꼭 지녀야할 핵심 능력 및 태도를 신장 시킬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 능력과 태도란 문제해결력, 비판력, 탐구력, 창의



력, 상상력, 협동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인성과 도덕성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하며, 정규교육과정 연계학습으로의 방과후학교는 일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들은 정규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고등학교의 교과관련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교과 보충·심화학습 프로그램으로 정규교육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학습은 교과관련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고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이와 같은데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창의적 개발활동 프로그램들과 관련을 맺으며 정규교육과정과의 연계학습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모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들이 정규교육과정과 연계를 지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규교육과정과는 관련성이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과후학교에 개설될 수 있다(마수미, 2012: 10-11).

#### (6) 방과후학교의 운영<sup>4)</sup>

방과후학교의 운영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되 인접 대학이나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학교는 수요 조사와 프로그램 개설 운영 및 평가 등을 총괄한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나치게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교육 대상은 해당 학교의 학생뿐 아니라 타교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성인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교육 장소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학생 보살핌, 청소년 보호선도,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인성, 창의성, 특기 계발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되 수요자인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강사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단위학교에서 인정하는 모든 현직 교원과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가용 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활용한다. 이를 위하여 시·

---

4) 전반적인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를 중심으로 본 연구자가 재정리하였다.

도 및 지역 교육청에서 강사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7) 방과후학교의 성격

#### ① 기능

방과후학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인적자원육성기능’으로 학생의 능력, 특기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 비교과,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성인에게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학생, 성인이 지덕체를 최대한 계발하여 유능하고 행복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게 한다.

둘째, ‘교육격차 해소 기능’으로 저소득층이나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정배경이나 사교육 차이에 의한 교육격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사교육비 경감 기능’으로 학생들이 방과후에 저렴한 비용이나 무료로 양질의 특기적성이나 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서 사교육비를 경감한다.

넷째, ‘교육복지 기능’으로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학습센터 기능’으로 성인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성인들을 위한 문화·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여섯째, ‘고용창출기능’으로 학교교원이외의 다양한 지역사회인사가 방과후학교 지도강사로서 참여하여 고용창출기능을 수행한다(임은경, 2010: 8-9).

### (8) 방과후학교의 의의 및 문제점

방과후학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 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 들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전인 교육의 차원에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지만, 방과후학교는 당초 의미와는 달리 일선학교에서는 보충수업 및 진도 나가기로 변질되었고, 강제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수강하게 하는 학교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 3)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대학이 주도하고 교육청-지자체 등이 협력을 통해 설립한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은 교과부가 공신력 있는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방과후학교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방과후학교의 질을 제고하여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sup>5)</sup> 또한 교사대·예체능계열 졸업생 등 우수인력이 참여하여 설립한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을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사교육비 경감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은 학생이 흥미를 느끼고 교사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하고 대학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교과 심화보충 프로그램, 예체능 프로그램, 돌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정규수업과의 연계, 자기 주도적 학습지도, 진로지도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모심사 결과 선정된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에서 EBS에 개발 영어교재 및 콘텐츠를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추진 중이다.<sup>6)</sup>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주5일수업제,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는 방학캠프, 주말체험 등의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권장한다.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참여 주체들의 확실한 역할이 중요한데 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5)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11.7.29) : '13년까지 50개 육성

6)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을 참고하였음.

<표 1>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참여 주체들의 역할

참여주체	역할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정책 수립, 사업설명회 개최, 예산지원, 우수모델 제공, 운영 매뉴얼 등 제공
대학(교·사대·예체능 계열 중심)	대학-교육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 MOU 체결, 졸업생 중심 강사 확보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법인 설립 관련 출연 및 대학 관계자가 이사로 참여하는 등 대학이 주도하여 설립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1개 사회적 기업 당 10개 내외의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협조, 대학과 협력하여 MOU 체결 등 공모계획서 작성 시 협력·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기업 지정 및 예산 지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및 경영 컨설팅
기업	재정지원, 경영홍보 마케팅 지원
단위학교	시범 운영과정 성과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정규교과과정과 연계 및 프로그램 운영 정착 지원

## 2. 방과후학교의 특기적성 교육

방과후학교의 내용적 측면의 성격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째, 특기·적성 교육 제공방안에서의 방과후학교이다.

둘째, 수준별 보충·심화학습기회 제공 즉, 교과관련 교육 제공 방안에서의 방과후학교이다.

셋째, 핵심능력 및 태도 신장방안으로서의 방과후학교이다.

넷째, 정규교육과정 연계학습으로서의 방과후학교이다(마수미, 2012: 10).

이들 중 본 연구자는 특기·적성 교육 제공방안으로써의 방과후학교에 주목하고 있다. 특기·적성 교육 제공방안으로써의 방과후학교의 성격은 학생의 개개인의 특성을 발굴하고 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개인이 지닌 다양한 특기·적성을 발굴하고, 이를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 1)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 활동의 목적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 활동은 학생들에게 바른 인성을 갖게 하고 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의 독립심, 협동, 자기 통제 및 책임감을 기르는 동시에 교육 평등의 이상을 실현한다.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초점을 두되 학교 교육과 연계성을 가지며 사고력 신장과 창의성 계발에 목적을 두고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이옥범, 1999: 26).

하지만, 위와 같은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 활동의 좋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의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 교육보다 국·영·수 위주의 주요 교과목 보충학습 개념의 방과후학교 비율이 더 크며, 고등학생들의 특기·적성을 발굴하고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살릴 기회조차 주지 못하는 입시 중심의 교육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 활동의 목적이다(이광호, 1999: 28-29).

첫째, 학생 각 개인의 적성을 고려하여 소질을 계발시키고 교과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개인이 직접 선택하여 참여함으로써 특기 신장 및 인성교육의 계기를 마련하여 학생의 소질, 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 신장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방과 후 빈 교실을 이용하여 교내 활동의 일환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고 교사 및 전문 강사로부터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접하게 하여 학교의 시설 및 인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

셋째, 교육의 장이고 문화의 장으로써 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학생들 간의 모임으로 친목을 도모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 문화를 이룸으로써 특기 적성 교육 활동과 관련된 동아리 중심의 학생 문화를 활성화한다.

넷째, 방과 후 시간을 통해서 예체능 과외 욕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만족시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줌으로써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

## 2)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현황

현재의 방과후학교는 처음 방과후학교가 도입되었을 때의 의도와는 다르게 점점 의미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 박용호 외(2011)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다양한 학교 내외의 강사 자원을 활용하여 정규교육과정이 다룰 수 없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다루는 교육활동을 일컫는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방과후학교는 위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다음 <표 2>의 2011년 6월 기준 방과후학교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표 2> 2011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2011년 6월 기준)

구분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초등학교	70,852	130,734
중학교	115,058	29,363
고등학교	169,248	15,395

방과후학교의 교과 프로그램 운영은 <표 2>의 내용과 같이 고등학교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급이 낮을수록 교과 프로그램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급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교과 프로그램에 비해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수가 확연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학교 내외의 강사 자원을 활용하여 정규교육과정이 다룰 수 없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다루는 교육활동을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방과후학교 라고 볼 수 없다. 다음 <표 3>은 방과후학교의 내용별 프로그램 현황이다.

<표 3> 방과후학교 내용별 프로그램 현황

구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초	17,120	2,002	29,159	14,550	27,355	25,329	22,429	19,786	19,511
중	20,998	17,341	24,783	20,534	25,859	1,519	7,853	3,118	8,067
고	36,281	28,271	37,443	25,655	37,524	3,177	1,748	1,300	2,575
계	74,399	47,614	91,385	60,739	90,738	30,025	32,030	24,204	30,153

위의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수학, 영어 관련 강좌가 가장 활발히 운영되며 초등학교는 예·체능 강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고등학교는 내신 및 수능 배려를 위한 주요 교과 관련 강좌를 주로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예·체능 관련 강좌의 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방과후학교 특기 적성 교육 활동의 필요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8)에서 ‘개인의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다.’라고 했듯이 방과후학교 교육은 학습 수요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그 특기나 적성을 계발시키는 것을 무엇보다도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학생의 소질이나 특기 적성을 위해서 학교 밖의 사설 학원이나 개인 교습을 이용할 수 밖에 없기에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커지게 되고 방과후학교 교육으로 재능을 살리고 특기를 계발 시켜주어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적게 해 줄 수 있는 방과후학교 특기 적성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특기 적성 교육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 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의 분위기를 만들고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 학생들이 학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특기 적성 교육활동을 운영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즉 특기 적성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의 소질, 적성 계발 및 취미, 특기 신장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과 특기 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한 동아리 중심의 학생 문화를 창달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며 학교의 시설 및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교육적 의의라 할 수 있다(김재복, 2000: 25).



#### 4) 특기 적성 음악교육 활동의 기대 효과

##### (1) 방과후학교 음악 특기적성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음악과 관련된 수업은 대부분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음악관련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미술, 공예, 사진, 문화예술분야와 함께 ‘심미적 감수성 및 기능 영역’으로 구분된다. ‘심미적 감수성 및 기능’에 따른 음악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실제 학교현장에서 중창, 사물놀이, 뮤지컬, 오케스트라, 국악합주, 악기교육, 중창, 밴드 등의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의 음악시설과 교육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개설여부가 결정되기도 하였다(한국음악교육학회, 2012: 27).

특히 방과후학교의 음악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감수성과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음악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전인적인 교육에 도달할 수 있으며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등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몫을 한다. 특기적성 음악교육 활동은 자신의 개성을 높여 주고 숨어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풍부하고 올바른 교양을 통해 정서를 함양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기대 효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마성숙, 2009: 35).

첫째, 특기 적성 음악교육 활동은 시간, 강사, 경비, 자원, 취미 등 여러 여건 속에서 학생들의 자율성, 사회성, 적극성을 익히기에 좋은 방안으로 방과후 교육 활동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둘째, 음악 특기 적성 활동을 통해 학교 밖의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 들여 공교육을 통한 학교 교육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강화하고 더욱 경쟁력과 학교에 대한 신임을 높인다.

셋째, 음악을 통해 필요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자기의 소질, 능력, 흥미, 적성, 인성에 맞게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근본적인 자세에서 시작한다.

넷째, 특기 적성 음악교육 활동을 통하여 표현력과 자신감을 갖게 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서 능동적인 자세를 갖도록 할 수 있다.

다섯째,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개인과외에 대한 감소를 기대한다.

여섯째, 공동체 생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협동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일곱째, 학교 안에서 대회나 발표회 시간을 통해 무대 매너를 배우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질을 키울 수 있다.

#### 5) 광주광역시의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

광주광역시의 방과후학교 강좌별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의 내용과 같다.

<표 4> 광주광역시 강좌별 프로그램 현황

구분	강좌별	운영학교수
초등학교	특기적성	140
	교과강좌	0
중학교	특기적성	82
	교과강좌	73
고등학교	특기적성	17
	교과강좌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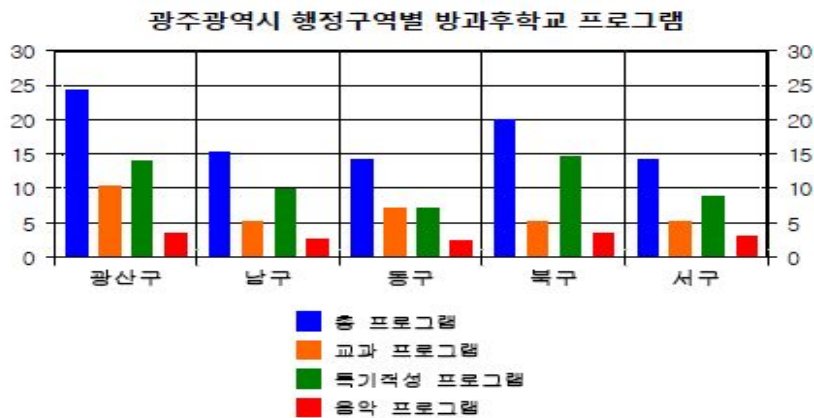
광주광역시의 강좌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굴해 줄 수 있는 특기적성 강좌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기적성 중심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방과후학교에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교과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이 방과후학교에도 반영되고 있어 방과후학교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광주광역시 방과후학교 음악프로그램

#### 1) 행정구역별 7) 방과후학교 음악프로그램 비교

광주광역시 내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음악 프로그램을 비교해 본 결과는 [그림 1]의 내용과 같다. 각 구 별로 음악 프로그램의 개설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음악 프로그램의 평균적 개설수가 교과프로그램과 특기·적성프로그램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로 음악 프로그램의 개설이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수미, 2012: 22).



[그림 1] 광주광역시 행정구역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비교(마수미, 2012: 22).

7) 광주광역시의 행정구역은 광산구, 남구, 동구, 서구, 북구로 구분하였다.

광주광역시 인근에 위치한 음악대학, 사범대학 졸업생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의 개설이 미비하여 음악 교육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4년 동안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음에도 방과후학교와 같은 좋은 취지의 교육의 장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 2) 음악프로그램의 세부내용

광주광역시 방과후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조사한 음악프로그램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8)</sup>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중 음악 프로그램은 총 695개로 유료강좌가 673건, 무료강좌가 22건으로 나타났다. 음악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바이올린, 플룻, 피아노, 성악, 첼로 등의 클래식음악, 밴드부 등의 실용음악, 가야금, 해금, 판소리 등의 국악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전 학년에 걸쳐 고르게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외부강사의 영입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강사의 분포가 고르지 않았으며 특정한 몇 명의 강사에 의해 광주광역시의 방과후학교의 음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지도방안이나 레슨계획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학부모들의 신뢰를 사기에는 어려워 보이나 사교육비 경감 면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점을 보아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광주광역시 방과후학교의 음악 프로그램 운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엿보였으며 여건들이 열악하고 방과후학교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나 노력 또한 부족해 보였다.

---

8) 광주광역시 방과후학교 홈페이지([http://after.gen.go.kr/new\\_portal/?sch\\_id=A0001](http://after.gen.go.kr/new_portal/?sch_id=A0001))를 참고하였음.

### 3) 광주광역시 방과후학교 음악 특기적성 사례

#### (1) 전통 문화 부서 운영(사물놀이반) : S중학교

광주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중학교로 학교에서 자체 운영하는 사물놀이반에 15~25명이 45분 수업으로 12개월 동안 60차시를 주 중 평일에 참여하였다. 사물놀이의 기본 악기 연주하기, 삼도 사물놀이 가락 연주하기를 통해 전통 타악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1인 1악기를 익히고 합주 능력을 함양하여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S중학교의 사물놀이반의 운영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축제와 타 기관 에서 특별공연을 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우리 전통음악 공연을 열어 우리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셋째, 사물놀이를 통하여 교사와 학생 소통의 장이 되도록 운영하였다.

다음은 사물놀이반의 활동상의 문제점 및 유의사항이다.

첫째, 흥미유발을 통해 쉽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둘째, 연 1회 전통문화 공연을 관람하고 축제 발표에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 (2) 특성화 부서 지원(관현악관련부서) : J중학교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J중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관현악부서는 1학기에는 30시간, 여름방학에 15시간, 2학기에 36시간, 동아리 활동 20시간으로 운영되었으며 특히 방학 중에는 3박4일간 총 40명이 참여한 관현악단 음악캠프를 운영한 점이 돋보인다. 12월에는 학생 관현악단 정기연주회도 실시하였으며 학교 내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 저렴하고 양질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과외욕구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였으며 안전한 학교 내의 교육으로 학부모의 선호도를 높이고 학생에게

는 수준에 맞는 흥미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 꾸준히 방과후학교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J중학교의 관현악부서의 교육활동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 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학교의 교육기능을 보완하였다. 단순히 교과목을 보충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학생들이 악기를 각각 연주할 수 있게 하여 흥미로운 학교생활에 보탬이 되었다.

둘째,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욕구 해소 및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 학교 밖에서 관현악 교육을 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으로 관현악 반을 운영하다보니 사교육비 절감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

셋째,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 및 연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를 실현할 수 있었다. 관현악반의 경우, 실력 있는 외부강사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 또한 할 수 있었다.

넷째, 진로지도에 용이하며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본교의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을 계발함은 물론 취미와 특기신장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감을 얻고 표현력, 집중력, 관찰력, 사회성 등이 두드러지게 발달됨을 알 수 있었다.

### (3) 악기반 운영 : U중학교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U중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활동으로 ‘평생교육악기반’, ‘학부모와 행복지킴 관현악반’ 등을 운영하며 매년 음악회 또한 준비하고 있다. U중학교의 악기반 운영은 본교의 음악선생님의 지도로 운영되었으며 학생인권부에 자주 오는 소위 학교에 문제를 일으키고 학습에 관심이 적은 학생들과 자주 면담을 한 결과, 문제해결을 위한 학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부족함을 알고 바른 교육과 인성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즉, 특기적성과 관련하여 ‘행복지킴 관현악반’을 창단하여 운영. ‘음악과 함께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요’ 라는 주제로 계속 운영되어오고 있다.

연주경력이 없는 학생이 많아서 악보 보는 법, 악기 소리 내는 법까지 하나하나 무료 개인지도를 실시, 현악기는 소수지만 오케스트라 전공 선생님을 재능봉사자로 임명하여 특별지도하게 하였다. 매일매일 지도하여 6월에는 간단한 동요, 가요 등을 직접 학생 수준에 맞게 편곡하여 합주를 실시, 연주수준과 관계없이 양로원, 병원 등 입원환자나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봉사연주회를 실시하였다. 학생들도 처음에는 자신의 악기 연주 실력 때문에 쑥스러워 했고 자신감도 없어했지만 재능나눔 선생님들도 연주에 참가를 시켜 음악의 질을 향상하게 하였다.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학생들의 관리, 지원이었다. 이것의 문제 해결방법으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희망어머니를 모집하여 직접 악기를 지도하는 '평생 교육 악기반'을 개설하여 악기도 지도하고 학생들과 멘토를 맺게 하여 상담도 하고 연주를 하러 나갈 때 자동차로 이동지원도 받고 같이 악기도 연주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교육청지정 음악교과 특기학교 지정, 교육과학기술부지원의 학생 오케스트라 거점 학교로 지정 받아 경제적 지원도 받게 되었다.

악기 연습은 1주일에 2~3회 실시, 여름, 겨울방학에는 매일 연습을 실시하였고 1주일간 음악캠프를 개최하여 집중 연습 하는 기회도 가졌다. 또한 전국을 돌며 음악회를 개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의 봉사교육은 물론 학교의 홍보에도 큰 보탬이 되었다. 음악활동에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봉사활동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찾아가는 연주회를 하고 어르신이나 장애인, 환우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특기를 이용한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새로운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또,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사랑의 방식을 체험하여 학생들의 자긍심이 높아졌다. 음악을 통하여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는 문화적인 생활을 공유하게 할 수 있었다.

### Ⅲ.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음악 프로그램 연구

#### 1.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프로그램 분석

##### 1) 특기적성 중심의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대학이 주도하고 교육청-지자체 등이 협력을 통해 설립한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신력 있는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방과후학교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방과후학교의 질을 제고하여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사대·예체능계열 졸업생 등 우수인력이 참여하여 설립한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을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사교육비 경감의 인프라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2월 13일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22개를 선정·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선정공모에는 1단계 55개 대학이 응모했고 1차로 선정된 35개 대학 중 2단계 심사에서 22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22개 대학 사회적 기업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815개 프로그램(교과 관련 246개, 특기적성 관련 416개, 주말특화 및 보육관련 153개)을 준비하고 오는 3월부터 단위학교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특기적성 관련 프로그램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이 특기적성에 큰 노력을 쏟아 부을 것으로 보이고 특기적성 중심의 방과후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악·미술·체육·체험 중심의 참여형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학생의 정서와 인성 함양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은 교·사대 및 예·체능계열 졸업생을 강사로 활용해 졸업생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우



수강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과후학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양한 사회우수자원을 활용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지자체와 연계,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고 공신력 있는 사회적 기업, 언론기관, 지자체 프로그램 등 사회 우수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이외에 기업·대학의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표 5>는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에 최종 선정된 대학교 22곳에 관한 자료이다.

크게 교과 및 특기적성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와 특기적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나눌 수 있는데, 교과 및 특기적성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수도권에서는 서울교대, 성균관대, 상명대, 인천대, 수원여대, 한신대, 영남권에서는 동의대, 신라대, 충청권에서는 충북대, 청주교대, 공주교대, 공주대, 호남권에서는 군산대, 전북대, 전주대, 순천대가 선정되었고, 특기적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대학교는 수도권에서는 서경대, 영남권에서는 경성대, 경남대, 충청권에서는 없고 호남권에서는 전남대, 조선대, 제주대가 선정되었다.

이들 대학은 각각 사회적 기업단의 이름을 만들었는데 몇 개만 대표로 예를 들어보자면, 전북대학교는 ‘큰사람아카데미’ 라는 이름을 지었고 전주대학교는 ‘두드림’, 군산대학교는 ‘아리울애듀’, 조선대학교는 ‘에토닉사업단’, 전남대학교는 ‘라운교육’ 이라는 각각의 이름을 지었다.

<표 5>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선정 결과

지역	교과 및 특기적성 운영	특기적성 중심으로 운영
수도권(7)	서울교대, 성균관대, 상명대, 인천대, 수원여대, 한신대	서경대
영남권(4)	동의대, 신라대	경성대, 경남대
충청권(4)	충북대, 청주교대, 공주교대, 공주대	-
호남권(7)	군산대, 전북대, 전주대, 순천대	전남대, 조선대, 제주대

다음으로는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에 선정된 대학교들 중, 특기적성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교들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아래 <표 5>는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특기적성 중심 운영에 선정된 대학교들의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를 나타낸 것이다. 총 6개의 대학교가 특기적성 중심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데 서경대학교는 총 6개의 특기적성 프로그램, 경성대학교는 47개, 경남대학교는 24개, 전남대학교는 21개, 조선대학교는 27개, 제주대학교는 6개의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sup>9)</sup>

각각의 대학들이 나름대로 방과후학교 특기적성에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된 방과후학교의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9) 단위학교의 요구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이 변경, 추가 운영 될 수 있다.

<표 6>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선정 대학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

지역	학교명	대상	프로그램 수
			특기적성
서울	서경대	초·중	8
부산	경성대	초·중·고	47
경남	경남대	초·중·고	24
광주	전남대	초·중·고	21
	조선대	초·중	27
제주	제주대	초·중·고·특수	6

다음은 특기적성 중심으로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몇 개의 대학교를 예로 들어 그 프로그램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1) A대학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A대학은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에 선정된 대학교 중 하나로 초·중·고 학생을 위한 창의·융합·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주말학교, 돌봄서비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등 다양한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고 책임교수제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① 창의·융합·체험 프로그램의 장점

첫째, 방과후교육 교사로서 자격을 갖춘 강사를 투입한다. 현행 방과후학교의 경우,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강사의 비율이 낮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이나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러므로 A대학교는 본 대학의 사범대 및 교직이수 졸업

생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 이후 책임교수의 멘토링을 통한 엄격한 강사의 질을 관리하고 조선대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교육·재교육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인성, 지성, 감성을 갖춘 강사를 육성, 특히 초등교육 관련 연수를 강화하여 방과후학교의 강사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둘째, 전인적 교육, 창의적 교육, 체험교육을 위한 교과목간의 융합을 들 수 있다. 현행 방과후학교는 카페테리아<sup>10)</sup>식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하여 교과목간의 융합이 되지 않고 각각의 과목만으로 단절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A대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여러 교과에 걸쳐 창의, 융합, 체험의 종합적으로 교과목들이 융합하는 형태를 띄게 된다.

셋째,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인다. 영역별 전공교수에 의한 책임교수제 운영을 통한 최신 이론에 발맞춘 우수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질 관리가 이루어진다. 3BQM(Bad? Better? Best? Quality Management)와 IEMS(Instant expert monitoring system)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모듈별 책임 교수제를 통해 체험과 성찰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모니터링, 수정하며 A대학교 교육학과 전공 교수 및 박사급 연구진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체재 구축으로 학교 및 학부모 만족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② A대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특징

첫째, 전인적 인간 성장을 위한 7 Colors를 지향한다. 창의, 지성, 인성, 생활, 문화, 감성, 건강의 7가지 면에서 학생을 관찰하여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배치한다.

둘째, 학생의 적성 및 진단 검사를 실시한 후에 프로그램을 알맞게 지원하며 학교 내 문제아동에 대해서도 선별하여 적절하게 지원한다.

셋째, 특별한 요구 즉, 성격, 정서, 행동문제, 학습문제, 다문화, 언어문제, 사회적

---

10) Self Service 식당의 대표적인 것으로 손님 스스로 진열되어 있는 음식을 선택하여 그 음식값만 지급하고 가져다먹는 형식을 말한다.

기술(특수교육/언어치료)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지원한다.

넷째, 엄격한 출결석 관리 및 학부모 지원을 들 수 있다. 출결 상황 알리미 서비스와 인터넷을 활용한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지원한다.

다섯째, 과학과 인문, 인문과 예술, 과학과 예술, 생활과 사회 등 전통적 교과목의 경계를 넘어선 융합·창의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여섯째, 모든 개별 프로그램은 학생의 활동을 중시하여 구성한다. 개별 Portfolio를 학부모에게 발송하기도 하며 Portfolio 경진대회도 한다.

일곱째, A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진 및 상담심리학부 교수진을 활용하여 학부모 및 교원대상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 강연회에서는 효과적인 학습전략이나 자녀교육법 등에 대해 다룬다.

### ③ 특별한 학생, 특별한 목적을 위한 A대학교만의 프로그램 운영

첫째, 시각, 청각, 지체, 지적장애,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및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읽기, 쓰기, 수학 등 주요 교과에 대한 장애 영역별 차별화 교수법을 적용하고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개별화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학습을 하며 특수교육 전공 교수의 감독에 의한 엄격한 질 관리가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은 읽기, 쓰기, 수학 등 개별 교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둘째, 학습부진·학습장애아 선별 및 교육을 위한 신개념 중재반응모형<sup>11)</sup>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읽기(유창성, 어휘, 독해), 쓰기, 수학 영역에서 학생들이 흔히 접하는 학습 문제에 대한 엄격한 진단을 통한 현 수준을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진단, 학습장애 여부에 대한 선별도 한다. BASA, ACCENT, 기초학습기능검사, 읽기진단 검사, 다양하고 객관적인 도구를 통해 학습문제를 진단한다. 현재 학년 수준, 친구들과의 학년 수준의 차이 정도 등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교육적 중재

---

11) 중재반응모형(responsiveness to intervention)은 현재 학습문제를 예방,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음.

를 실시한다. 사후 처방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성장과 반응을 보고 교육방법을 결정하는 과학적 접근 방식을 적용한다. 학습된 무기력이 있는 학생을 위한 ‘탈학습무기력’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며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교수법만 적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한다.

셋째, 학습부진·학습장애아 학생을 위한 학습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습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기초 및 심화 학습기술을 개발 운영한다. 학습기술에는 동기과 효능감, 자원관리 기술, 인지기술, 초인지기술, 학습선행기술, 시간관리 기술 등 다양한 기초학습기술 개발 프로그램이 들어가며 한국학습장애학회 인준 학습장애전문가를 활용하며 학습장애 학생 지도 경험이 풍부한 특수교육 교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넷째, 사회성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 내 사회성이 부족한 학생들의 사회성을 개발, 학교 내 문제행동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중재한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응용행동분석, 학교 수준의 긍정적 행동지원 전략, 독서요법, 분노관리전략, 사회·정서학습 전략 등을 활용한 사회성 개발 및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평화교육을 통한 학교 내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 교육 또한 하며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하다.

다섯째, 학교 내 다양한 학습과 관련된 정서적 문제를 가진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 내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의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도구를 활용한 학생의 현 상황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학생, 자기통제 및 자기규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학생, 낮은 자아개념을 가진 학생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여섯째, 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 수준과 학교 전체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여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저성취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곱째, 장애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애 이해를 통한 통합학급 내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 이는 단순히 장애 학생에 대한 관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전반적인 관계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며 장애 이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타인에 대해 배려 및 공감 능력을 개발한다.

여덟째, 장애 학생을 위한 음악, 미술,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음악, 미술, 체육 프로그램을 장애 학생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한다. 특수교사가 직접 이 사업단에서 개발한 음악, 미술(애니메이션 포함), 체육 프로그램을 개별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운영한다.

아홉째, 다문화 아동을 위한 개별화 교육 및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읽기, 쓰기, 수학, 사회 등 다문화 학생이 필요한 교과에 대한 차별화 교수법을 적용한다. 교과 교육뿐 아니라 다문화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학교 내 정서적, 사회성 관련 문제 해결 전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적응력을 높이도록 도와준다.

위의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A대학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은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기적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과목 간의 융합을 통해 전인적인 교육을 한다는 점, 또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을 개발, 응용하고 적용하며 학생 각각을 세심히 살펴 적재적소에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는 점 등은 방과후학교의 긍정적인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한다고 생각하며 A대학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미래는 밝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위의 장점들이 학교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은 든다. 이론과 실체는 다르기 때문에 이론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실제 학교현장에 나가보면 이론대로 되지 않는 점들이 많고,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도 생길 것이다. A대학은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도움과 지원 없이는 그 효과가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A대학의 좋은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여 학생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바란다.

## (2) B대학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B대학은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에 선정된 대학교 중 또 다른 하나로 방과후학교 수업 지원을 위하여 B대학이 주도하고 광주교육청, 광주광역시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설립한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하고 올바른 인성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① B대학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운영 특징

첫째, 학교와 학생이 희망하는 참신하고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강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범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맞춤형 교육, 연수를 실시한 후 적격자만 강사로 선발한다.

셋째, 학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구성과 강사 양성이 가능하다.

넷째, 사이언스쇼, 마술 등의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학탐방, 천체관측 등 야외학습 안내 등의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섯째, 각 급 학교 동아리활동을 지도한다.

### ② B대학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지원 가능 지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광주광역시, 전남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지원 가능하며 공연 프로그램 및 야외학습 안내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지원 가능하다.

### ③ B대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소개

B대학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B대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용
논술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술, 면접과 자기소개서 등 대학 전형에 필요한 글쓰기, 발표력 신장</li> <li>· 실습과 피드백 중심의 수업</li> </ul>
즐거운 과학실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상의 탐구활동 중 여러 가지 이유로 정규 과학 수업시간에 어려운 탐구활동을 실시함</li> <li>· 개념학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학 수업에서 탐구활동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여 탐구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력 및 문제 해결력을 기름</li> <li>· 동일한 주제에 대한 실험 중 타고과서에 있는 다양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li> </ul>
사이언스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실험을 공연의 형태로 보여줌</li> <li>· 과학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함과 동시에 사이언스 쇼에 적용되는 과학 원리 설명</li> <li>·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북돋워 줌</li> <li>· 학교 행사의 공연 형태로도 운영 가능</li> </ul>
과학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관 탐방, 지질 탐사, 천체 관측, 갯벌 탐사, 해양탐사 생태계 답사 등 야외 학습 운영</li> <li>· 사전 학습, 추후 활동을 통하여 과학 탐방을 체계적으로 관리</li> <li>· 학교 단위, 또는 지역 단위로 운영</li> <li>· 단순한 관람이 아닌 체계적인 과학 탐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전문 도슨트가 안내하고 지도함</li> <li>· 탐방 장소와 주제를 교육 과정상의 학습 내용과 관련지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탐방 학습 자료를 통하여 탐구활동을 안내함</li> </ul>
신기한 미술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한 미술을 배우는 활동</li> <li>· 미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을 통하여 기술을 익히는 연습을 함</li> </ul>
과학 글쓰기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토론을 위한 탐구방법 익히기, 보고서 작성, 프리젠테이션 능력 함양</li> <li>· 과학 토론기법 훈련</li> </ul>
FBC몸짱클럽 (Fat Burn Clu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APS 시행후 저체력군, 비만군을 학생을 위한 체력관리 프로그램</li> <li>· 과학적인 트레이닝 방법 및 체력측정, 영양, 재활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몸 만들기 교육실시</li> <li>· 학생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li> </ul>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B대학의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은 과학과 교수님의 주도하에 진행되므로 주로 프로그램들이 과학 쪽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각각의 프로그램들의 장점만을 특화시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많은 공을 들였음이 엿보이고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세세하고 자세히 가르치려 노력하여 학생들의 만족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 2) 특기적성 중심의 음악 프로그램 분석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에서 특기적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A대학교, B대학교의 특징들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특기적성 중심에서도 음악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음악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 하고자 한다.

### (1) A대학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음악 프로그램

A대학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음악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8> A대학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음악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도움 되는 영역
음악의 세계	기악 활동 해금/플룻/클라리넷/ 색소폰/금관악기	기악활동을 통해 음악성과 건강한 감성을 키운다.	인성, 문화, 감성, 건강
	밴드/기타/우쿨렐레	최근 K-pop의 열풍으로 인하여 누구나 배워보고 싶어 하는 기타와 우쿨렐레(꼬마기타)의 운지법을 알고 연주력을 키운다.	인성, 문화, 감성, 건강

단소/리코더/오카리나 배우기	휴대하기 편한 단소, 리코더, 오카리나의 운지를 알고 합주를 통해 협동심을 기른다.	인성, 문화, 감성, 건강
관악양상블	관악기의 여러 종류와 음색의 차이를 이해하고 양상블을 구성하여 하나 되는 마음으로 연주한다.	인성, 문화, 감성, 건강
뮤지컬 (노래와 연기)	올바른 뮤지컬 발성법을 익히고 연기력과 연주력, 창작능력, 협동심과 배려심 등을 함양한다.	창의, 지성, 인성, 생활, 문화, 감성, 건강
아카펠라/ 합창	배우고 싶은 노래 목록을 제작하여 흥미를 유발한 다음 소리를 맞추며 협동심과 배려의 자세를 배우며 잠재된 리듬감과 음감 및 음악성을 향상시킨다.	창의, 지성, 인성, 생활, 문화, 감성,
Singlish(영어, 노래로 배워요)	영어노래를 통해 영어로 말하는 능력, 듣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키우며, 신체활동으로 표현 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준다.	창의, 지성, 인성, 문화, 감성, 건강
베토벤 음악교실	피아노 실기교육과 디지털피아노 주말 합주 클래스를 병행 운영한다. 혼자서 연주하기 힘든 베토벤 교향곡을 모듬연주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창의, 지성, 문화, 감성
드럼 씨클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리듬과 여러 종류의 타악기를 사용하여 음악성, 인성, 사회성 및 공동체 의식을 키운다.	창의, 인성, 문화, 감성, 건강
사운드 테라피	최적의 학습 환경과 학습자 릴렉스를 유도하기 위해 자연의 소리, 맞춤형 음악을 제공하고 학습자 스스로 스트레스 해결에 필요한 음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감성, 건강

A대학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음악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장르를 불문하는 다양한 악기들로 창의, 지성, 인성, 생활, 문화, 감성, 건강 및 다양한 영역에 도움을 주는 음악 활동들을 통해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교육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을 통해 하고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다양하고 특화된 음악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가간다면 그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얻음은 물론 앞으로의 방과후학교의 음악 프로그램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2) B대학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음악 프로그램

B대학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음악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B대학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음악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용
뮤지컬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예술인 뮤지컬을 통하여 음악, 무대미술, 의상, 연기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체험하고, 뮤지컬을 직접 공연하기 위해서 기획, 연주 등의 창작과정을 학습함</li> <li>· 학생들이 뮤지컬을 만들고 연주함으로써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각 예술 영역의 기본 개념과 기술을 학습함</li> </ul>

B대학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음악 프로그램은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단위학교에서 국악이나 합창 수업 등은 원하지 않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제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인 ‘뮤지컬 교실’만 소개한다. ‘뮤지컬 교실’은 하나의 악기만을 다루거나 하나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종합예술인 뮤지컬을 통해 음악 뿐 아니라 무대미술, 의상, 연기, 무용 등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뮤지컬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자립심과 책임감, 리더십 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3) A대학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과 B대학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의 비교

앞서 A대학과 B대학의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특징과 음악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았는데 특기적성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큰 맥락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대학은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에 선정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 흔적을 많이 엿볼 수 있었다. 체계적이고 세심한 면까지 신경 썼으며 어느 대학보다도 많은 인재와 시간을 투자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음악 프로그램 부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는데 방과후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연구, 계획하였고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시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단일교과목으로써가 아닌 타교과목과도 융합하여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완벽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이며 꽤 오랜 기간이 걸릴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B대학은 특히 과학 분야에 노력을 많이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들을 연구, 개발 하였고 실제 학교 현장이나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신경 쓴 점은 매우 좋았으며 그로 인해 B대학의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의 흥미도와 만족도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든다.

A대학과 B대학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노력은 앞으로의 방과후학교 발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더욱 더 성공적인 방과후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 없이 연구, 학교 현장에 적용해보는 등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 2.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음악 프로그램 장점

기존의 방과후학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 행해지던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박병선, 2009: 61).

첫째, 사교육과 비교하여 실력향상이나 소질개발 도움에 대한 경쟁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이나 수요자의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한 학교나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특성화되고 다양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사교육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진다.

둘째, 중·고등학교에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있지 못하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중요시하기 때문에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프로그램의 수가 적다. 이러한 일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적성 발굴 및 함양,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를 어렵게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일들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도와 흥미를 감소시킨다.

셋째, 방과후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급별로 방과후학교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초등학교는 특기·적성 계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중학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수준별 교과 보충 프로그램 중심으로, 고등학교는 교과 보충·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방과후학교 운영 체제가 입시 중심의 교육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해하는 요인은 입시 교육 위주와 대량 생산적인 교육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의 흥미와 능력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의 선택권이 축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수요자 참여도와 만족도 제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존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해보고자 등장한 대안이 바로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이다. 방과후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질과 내용이 좋아야하는데 현재는 현직교사 위주로 운영이 되

다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의 한계가 있고,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또한 나타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참여를 강조한 사회적 기업이 나오게 된 것이다.

막상 학교 현장을 가보면 비리의 발생이나 지나친 영리 추구의 문제를 제기 하며 학생이나 학부모 등이 방과후학교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 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이고 공신력 있고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응모하여 대학 졸업생들, 교·사대 예·체능 계 대학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을 공모하게 되었다.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방과후학교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받는다는 점이다. 예산 지원 면에서는 프로그램, 교재 개발비, 강사 연수비, 운영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하고 언론기관이 참여할 경우에는 저소득층 수강료, 강사료 운영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행정적인 지원 면에서는 처음에 언론기관이나 사회적 기업이 학교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시범학교를 10개 정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다.

둘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또한 교과심화보충프로그램, 예체능프로그램, 돌봄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에서 자기가 공부한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하여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계획, 운영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창의적인 체험활동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또한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이 담당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셋째, 이번 제도는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교·사대 졸업생 중 교사로 취업하지 못한 임용고시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에 의한 취업률 상승의 긍정적인 효과 또한 기대된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4년 동안 학생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못해서 자기의 재능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 국가적으로 큰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전공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기업의 설립자가 될 수 있고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도 예체능을 위한 사교육에 전체 사교육비가 30% 정도이며 예체능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상당히 큰 상황이다. 정규수업시간에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예체능 교육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과후학교에서 해결해보자 하는 것이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취지이기도 하다. 예체능 졸업생들의 취업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런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체능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교·사대 졸업생들이 주역이 되어 방과후학교의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넷째,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우수한 강사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농·산·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서 졸업생들이 중심이 돼서 그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그 사회적 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선정, 지원해주어 소외된 계층에게도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장점이다.

다음은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장점이 다.

첫째, 교·사대 졸업생, 교직을 이수한 예·체능 졸업생 등의 인력풀을 통해 학교현장에서는 방과후학교의 예·체능 프로그램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교사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에서는 기존의 방과후학교 강사 지위에서 방과후 활동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담교사제가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의 방과후학교의 단일 교과목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특화된 프로그



램 및 융·복합 프로그램의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타 교과 학습에도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셋째, 요즘 학교현장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성교육은 음악 프로그램에서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즉 개인별 활동보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동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뮤지컬, 합창, 합주, 사물놀이 등을 통해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방과후학교가 도입된 이후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학교와 교원의 부담,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과 우수강사 확보의 문제였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만으로는 방과후학교가 해결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방과후학교가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은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질 높고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과후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기에 학생, 학부모, 대학, 지역사회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참여를 해야만 이 노력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의 방과후학교에 발전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리라 생각한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에 주목했고 이제 시작한 사업이지만 앞으로의 방과후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자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또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운영방식, 교육 프로그램, 우수한 지도강사 확보 등 길게는 방과후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함이며 그 중에서도 특기적성 중심의 방과후학교 교육, 특히 음악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은 기존 방과후학교의 단절된 교과목 위주의 수업을 탈피해보고자 많은 관심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고, 특화된 질 좋은 다수의 프로그램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강사들을 확보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학생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자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기적성 중심의 음악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방과후학교의 음악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학교의 음악 프로그램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음악적 교육환경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해야 한다. 음악실이나 연습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악기 보관이 가능한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고, 악기교육을 위한 학교나 교육청단위의 악기 구비를 통해 특기적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요자 요구에 따른 환경적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둘째, 교·사대 졸업생, 예·체능 졸업생 등 우수 음악관련 강사 자원들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졸업생의 취업을 증가 및 교수기회를 확대시킨다. 또한, 소외된 계층과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교·사대 졸업생들의 우수한 능력으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중학생 인성함양을 위한 음악관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또래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생 간의 바람직한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수를 확대하고 합창, 사물놀이 등 협동수업과 프로젝트수업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활동 모델을 적용한다.

넷째,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음악 교육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꾸준히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이므로 음악 방과후학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강사비 지원, 악기지원, 음악실 환경지원 등 다양한 지원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요즘 국가의 사교육비 절감 정책과 다양한 복지 예산 및 저렴한 방과후학교 시책에 발맞추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70%를 넘어섰다고 한다.<sup>12)</sup> 이에 걸맞게 방과후학교의 질 또한 높아져야 할 것이다. 즉,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의 운영, 검증된 전담교사의 배출과 지속적인 연수 및 교사 관리, 음악시설 지원 및 음악교육의 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강사,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방의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등 여러 사람들이 조금만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생활 속에서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의 전성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이후 방과후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후속연구가 계속되고,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계속 연구되고 실행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가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의 발전과 보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12) 교육과학기술부는 도입 초기인 2008년 54.3%였던 학생 참여율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65.2%, 올해는 71.9%를 기록했으며, 프로그램 수도 2008년 23만개에서 지난해 53만개, 올해 60만개로 2.5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 참 고 문 헌

- 강진현 (2009). 공교육 서비스의 마케팅 전략 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 : 초, 중, 고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 교육과학기술부 (2011).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2단계 계획서 작성을  
위한 관계자 회의 자료집**. CRM 연구 2011-12, 서울: 한국교원개발원.
- 교육과학기술부 (2011. 11. 10).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계획**.  
<http://www.mest.go.kr/web/987/ko/board/view.do?bbsId=67&boardSeq=26124>,  
2012년 8월 20일 검색.
- 김병훈 (2010).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초등영어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모형 개발.  
미발행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성기 (2011). **사회적 기업의 이슈와 쟁점**. 서울: 아르케.
- 김은희 (2012). 베이비부머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설립 사례연구. 미발행 석  
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 김일영 (2012). **방과후학교 운영의 실제-음악 특기적성 프로그램 중심으로**. 서울:  
한국음악교육학회.
- 김태웅 (2007). 대구 지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음악활동 실태 분석 및 개선 방  
안.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노현지 (2011). 아츠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한 방과후 기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초등학교 2학년 바이올린수업을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숙명  
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마수미 (2012). 중학교 방과후학교의 음악프로그램 실태조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  
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명지현 (2008).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위한 뮤지컬 지도에 관한 연구. 미발행 석  
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홍근 (2008). **전라북도익산교육청 2008년 하반기 프로그램 강사 연수**. 익산: 전라  
북도교육청.
- 민경훈 (2007). 초등학교 문화 예술 교육으로서 '방과 후 학교'를 위한 통합형 음악  
교육의 수업안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7(1), 189.
- 박병선 (2009). 방과후학교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교육청 산  
하 학교를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벤처기업협회 (2009). V+CSR 사회적 기업의 정의-당신도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벤처다이제스트**, 2(46), 46.
- 심라경 (2010). 클래스 피아노를 활용한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구. 미발행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 양준호 (2011). **지역과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 기업**. 서울: 두남
- 엄재화 (2008). 초등학교 음악과 방과 후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우수미 (2010). 초등학교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교육의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애지 (2012). 방과 후 특기 적성 음악 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학생 인식: 강남, 강북 지역 중학교를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선경 (2012). 성공적인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요인 분석: 서울시내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이선희 (2001). 코다이(Zoltan Kodaly)음악교수법을 활용한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육범 (1999).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관한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인선 (2011).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술지원정책 연구: 음악교육지원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 이혜숙 (2009). **서울시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임은경 (2010). 전북지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플루트반의 실태비교와 개선방안: 방과후 지정학교 4개교를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도근 (2011). **방과후학교의 이론과 실제**. 파주: 교육과학사.
- 조덕주 (2008).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시범 운영 실태 분석 및 운영모델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정선 (2009). 중학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서의 보컬(Vocal) 실기지도 연구 방안: 실용음악을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교육개발원 (2006). **2006 방과후학교 운영 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음악교육학회 (2012). 방과후학교의 목적·의미&실제. **한국음악교육학회**, 27, 35-36.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음악교육과	학 번	20108084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문 혜 진    한문: 文 惠 珍    영문: Moon Hye Jin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덕산아파트				
연락처	E-MAIL: hoya2612@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음악 프로그램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영문 : A Study on a Music Program of University-led After-School Social Business: Focusing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12 년 10 월 26 일

저작자: 문 혜 진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